



◀감타래에서 꽃감이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다. ▶영동 꽃감

# 달달함이 주렁주렁

## 주황빛 영동꽃감

웰빙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충북 영동지역도 입동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이맘때면 영동에서는 집집마다 감타래에 껍질을 벗은 발그스레한 감이 주렁주렁 익어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감 고을영동에서 흔한 겨울 풍경이다. 뚝은 감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껍질을 벗고 잘 말리면 달콤한 꽃감으로 탄생한다. 달콤하고 쫄득한 꽃감을 먹고 있으면 아련한 추억은 덤이다.



감나무 가로수길 전경. <사진=영동군 제공>

◊옛 추억 담은 감나무 가로수길  
1970년대부터 조성한 감나무 가로수는 충북 영동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다. 159km 구간에 2만 1706그루의 감나무가 영동군 도로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 가로수길은 전국에서 가장 긴 감나무길이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면 옛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른다. 특히 가을이면 단풍 사이로 흠뻑 익어서 붉게 말랑거리는 흥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달콤하고 쫄득한 웰빙 간식  
충북 영동은 일교차가 큰 지역으로 당도 높은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영동꽃감은 둥글게 생긴 감이라고 해서 '동시'라 이름 붙여졌다. 동시는 다른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생과 때는 주먹을 받지 못하다가 껍질을 벗고 말린 후에야 사랑을 받는 꽃감으로 탄생한다.

농가에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 전후로 감을 꺾어 45일 정도 자연에서 건조해야 꽃감이 된다. 영동감은 만성기관지염,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으며 민간약으로 숙혈, 폐혈을 다스리는데 이용했고 감기예방, 전염병의 예방과 눈의 생리적 활동 촉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감은 비타민 A, C가 풍부해 다른 과일보다 단백질, 인, 철분 등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알카리성 식품이다. 식사대용은 물론 다이어트, 피부미용에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영동꽃감은 노화예방, 피로해소, 면역력 유지뿐만 아니라 기억력 인지능력, 학습능력 향상 등 두뇌활동에 도움을 주며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추억의 맛과 푸근한 정이 들어 있어 한번 맛본 이들은 그 매력에 영동꽃감을 다시 찾게 된다.

◊꽃감양갱, 꽃감호두말이 등 퓨전음식 인기  
영동꽃감을 그대로 먹는 것도 좋지만 퓨전음식

뚝은 감 껍질 벗겨 45일 자연건조  
비타민·단백질·인·철분 등 풍부  
노화예방·피로해소·면역력 유지

전시·체험·판매... 내년 1월 축제  
전국 최장 159km 감나무길 인기  
해외판촉전·박람회로 세계화 앞장

으로 더 재밌고 맛있는 꽃감을 즐길 수 있다. 영동군은 영동 꽃감의 판로 다변화를 위해 기능성 식품인 꽃감양갱도 개발하고 제30류(양갱, 디저트용 푸딩, 아이스크림 등)를 특허출원했다. 꽃감의 씨를 제거한 후 만든 꽃감양갱은 쫄득 쫄득한 꽃감의 식감을 자랑한다. 꽃감에 호두를 넣어 만든 꽃감호두말이는 달콤함과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겨울 별미다. 간식으로도 좋지만 영동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과도 잘 어울리는 안주이다. 이외에도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꽃감샐러드, 꽃감요거트 등 다이어트 퓨전음식이 큰 인기를 얻으며 레시피에 대한 궁금증이 뜨겁다.

◊세계인의 입맛도 사로잡는 영동꽃감  
영동꽃감은 매년 해외 수출길에 오르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2009년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등록하고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로하스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효능을 대외적으로 입증 받았다.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지역인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까지 해마다 수십 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해외 현지 판촉전을 진행하고 수출박람회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영동꽃감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다.

◊영동 감고을산업 특구 2024년까지 연장  
2007년 지정된 '영동 감고을산업 특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얻어 2024년까지 연장된다. 지정면적 42만 2000㎡를 유지하며 감·꽃감 사업비가 총전 269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액돼 명품 영동꽃감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영동군은 영동감클러스터 조성사업, 감가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유통시설개선과 함께 관광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해마다 2000여 농가에서 2500여t의 꽃감을 생산하고 있다.

◊내년 1월 영동꽃감축제에서 만나오  
영동은 매년 새해가 시작할 때 즈음 영동꽃감축제를 개최한다. 2022년 영동꽃감축제는 내년 1월 14일부터 3일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겨울철 대표 명품 축제인 영동꽃감축제는 고향의 정겨움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축제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영동꽃감의 명성을 알리고 있다.

꽃감을 소재로 다양한 판매, 전시, 체험, 문화행사 등에 먹거리를 곁들이 꽃감 꺾기, 꽃감따기 체험행사 등 달콤하고 쫄득한 영동꽃감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판매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쫄득한 영동꽃감을 비롯해 과일의 고장의 명품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영동군은 워드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누비며 맛난 영동꽃감을 시용하고 즐겨온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벌써부터 축제준비에 분주하다. /대전일보=육종천 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